



## SPOT LIGHT

AKG

디지털로 새로 태어난 AKG 무선 마이크/벨트팩 시스템

# AKG DMS100 / DMS300 SERIES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유가 비슷하다. 아무래도 무선 신호로 사운드가 전달될 경우 신호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다, 심지어 신호가 교란되어 엉뚱한 소리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록그룹 익스트림 라이브에서 무선 마이크가 교란되어 보컬 게리 세론의 채널에서 엉뚱한 소리가 났던 사례는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보강한 디지털 와이어리스 시스템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러한 걱정은 사라지고 있다. 이제 교회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글\_ 이정민 기자 · 자료제공\_ (주)테크데이터파이에스 [www.techdata-ps.com](http://www.techdata-ps.com)

### AKG 명품 스튜디오 모니터 헤드폰의 진화

디지털 와이어리스의 시스템은 기존의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마이크에서 소리를 받아 이 신호를 디지털화 시켜 보낸 후, 그것을 리시버에서 아날로그화 시켜 콘솔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거리가 멀어져도 신호만 중계할 수 있다면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가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질의 손실은 거의 없게 된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상, 오류 체크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전송시 빠진 신호를 체크해 수정해 준다. 다만,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다시 아날로그로 풀어내는 데 걸리는 레이턴시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었다.



DMS100

### 귀에도 편안하고 수리가 쉽게 설계

AKG에서 출시한 DMS 100~300 와이어리스 시스템은 이러한 걱정을 모두 해결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가장 걱정인 레이턴시의 경우, DMS 100~300 모두 2.9ms 이하로 어지간한 연주자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다. 신호는 2.4GHz의 고주파를 통해 24bit, 48kHz의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깨끗한 음질의 오디오를 교란 없이 픽업할 수 있다. 또 한 두 제품 모두 허용 거리가 30m를 넘어가는 정도이니 어지간한 무대에서 아무리 뮤지션의 퍼포먼스가 강렬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다.



DMS300 벨트팩



신호의 레이턴시를 라이브 사용 가능한 수준인 2.9ms 이하로 줄였다.  
앞면 패널로 설정하기 쉽게 배려했다



기타, 베이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벨트팩 시리즈도 구매할 수 있다

###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강화

시스템의 연결 역시 간단하다. 마이크와 리시버를 켜 후 리시버의 LCD를 확인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또한 DMS300의 경우 최대 8대, DMS100의 경우 최대 4대를 한꺼번에 통제하고 무선으로 운용할 수 있어 설치 또한 간단하다. DMS100과 DMS300 두 제품 모두 신호를 AES 256 코덱으로 보안처리해 보내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의 신호와 교란되거나 할 가능성도 아예 줄어들었다.

AA 배터리 2개만으로 1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

역시 장점이다. 두 제품 모두 핸드 마이크와 배터리팩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컬리스트와 손악기 연주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AKG의 DMS100 시리즈와 DMS300 시리즈를 이용하면 교회에서도 선에 구애받지 않은 편안한 무대를 구성해 찬양의 효율을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유선 마이크의 선 정리에 피곤함을 느꼈거나, 구형 무선 시스템으로 힘들어했던 교회들은 뛰어난 성능에 가격도 저렴한 AKG의 DMS100~300 시리즈를 한 번 고려해보자. ♪)



DMS300의 핸드마이크에서도  
채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2시간 넘게 플레이 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도 장점



DMS300 리시버의 백패널.  
총 8대의 DMS300을 연결해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다